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성 바로알기 | 호남 문화 | 법과 질서

양동옥

자연주기 피임법, 그 쾌락과 고통의 교환관계

성행동에 관한 젊은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일까. 필자가 지난해 한 포털사이트 '지식 검색'에 올라온 성 관련 질문을 분석해본 결과, 그것은 바로 '임신 가능성'이었다. 그들의 근심은 대략 이러했다. "날짜를 계산해보고 안전할 것 같아서 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리할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임신일까요? 진짜 죽을 것만 같아요."

안전한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은 채 성교를 하게 되면 성교 후 생리일까지 오랫동안 임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게다가 생리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면 임신의 공포는 극에 달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무책임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신이시여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시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히 애원할 것이다. 이렇듯 준비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행동은 짧은 시간의 성적 쾌감을 얻는 대신에 원치 않는 임신의 공포와 두려움의 비용을 치러야만 한다.

성생활을 하는 사람 중 일부는 여성의 신체 주기를 이용해 피임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날짜피임법' 또는 자연주기법'이라고 한다. 자연주기법은 여성의 월경 주기에서 언제 배란이 나타나는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월경 주기는 '이번 달 생리가 시작된 첫날부터 다음 생리 시작일까지의 경과 기간'을 말하는데 배란일은 보통 다음 생리 시작 14일 전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임신할 수 있는 배란 예정일 주변 기간을 피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만 성교를 한다.

이것은 낙태를 죄악시하는 가톨릭에서 1930년대 피임의 한 방법으로 권장했던 방법이다. 그러나 피임 실패율이 얼마나 높았던지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해서 '바티칸 룰렛(Vatican roulette)'이란 조롱을 받기도 했다.

그런 위험성에도,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자연주기법을 적용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근 생리 시작일과 월경 주기만 입력하면 여성의 배란 예정일 및 임신 가능 기간을 알려준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다수는 그 프로그램을 맹신하며 그 결과가 알려주는 대로 임신 가능 기간만을 피해서 성교를 하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주기법은 피임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생리 시작일을 예측'하는 것에 있다. 지난 일 년 동안 28일 정도의 규칙적인 월경 주기를 보인 여성들에게 다음 생리를 언제쯤 하느냐고 묻는다면, "6월 8일 아침 9시에 생리를 시작했으니까 7월 6일 아침 9시에 하겠네요."라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생리 예정일은 다음 생리 예정일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측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아주 규칙적인 월경 주기를 가진 여성에게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00%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여성의 몸은 기계가 아니므로 항상 오차가 존재한다. 여성의 생리 현상은 뇌와 난소의 상호 피드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 내부와 외부의 변화 즉 스트레스, 건강상태, 체중변화, 약물복용 등으로 월경 주기가 얼마든지 불규칙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예측은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며 생리가 나온 후에야 비로소 그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들이 다음 생리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결국, 자연주기법을 이용한 피임은 도박처럼 성공 확률이 낮은 피임법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되 다른 안전한 피임법과 병행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성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 안전한 피임 방법을 준비하지 않은 채 성교를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와 같은 고통으로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피임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불안전한 피임법의 사용으로 임신의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한 피임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김성근

역사의 배, 흔들려도 앞으로 나아가야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정치권의 이념논쟁 기사 내용들은 보통의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짜증이 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지면을 통하여 이러쿵저러쿵 하자니 면목이 없기도 하다.

통합진보당 전국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와 임수경의원 탈북자 폭언 등, 논란을 통하여 그동안 호리병 속에 갇혀 있던 해 묵은 정치적 이념 논쟁의 망령들이 마개가 열리자 마구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온 듯하다. 소위 종북주의자라는 패찰이 마치 자석에 녹슨 철 달라붙듯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구 달라붙고 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현실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육신 어딘가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일상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혹 지나다 모서리에 상처가 부딪치면 비명을 지르고 정신을 잊고 만다. 꼭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모습인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왔다. 이점은 뒷날 역사가의 평가로 미루더라도, 지난 과거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우리 모습은 그래도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 나라의 많은 논객이 지난날에는 언급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렸던 남북 분단에 관한 이념적 주제들을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전제하면서 날선 주장들을 하고 있다. 많은 언론 매체들이 담아내는 주장들이 각각의 내용들은 나름의 명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시대의 판세를 달리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나누고, 대립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소통을 통한 통합과 조화의 주장이었으면 한다.

바다에 떠 있는 역사의 배가 파도로 인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지만 역사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누가 누구를 이긴다는 말인가! 역사는 진화할 뿐이다. 역사는 승리자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무대의 배우처럼 무대에 나섰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역사의 방향이 달라졌다. 과거의 역사 드라마에는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있었지만은 앞으로의 역사 드라마는 무대와 객석이 하나이다. 감동을 무대 위의 배우만이 관객인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관객인 대중이 무대 위의 배우를 감동하게 한다. 이것은 소통을 통한 통합과 조화의 위력이다. 지금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일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적 이념 갈등을 소통을 통한 통합과 조화의 힘으로 이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연착륙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가슴 안에는 남북 분단의 역사로 인하여 생긴 상처가 깊다. 이 상처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치유를 하자.

가시 돋친 독설과 험악한 몸짓으로 부딪치지 말자. 더 이상 우리 모두의 상처를 더 깊게 해서는 안 된다. 총선 정국에서 야기된 뿌리 깊은 정치적 이념 갈등의 병맥을 끊고 연말 대통령 선거를 맞이 하자. 이 나라의 정신적 선각자들은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지금의 극심한 이념적 갈등을 역사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대중은 조그만 틈새라도 소통의 여유공간으로 만들어 통합과 조화의 정치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연말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이 나라의 천형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한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해 내는 역사적 대통령을 희망하고 있다.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그간의 아픔을 자양분 삼아 찬란한 평화의 역사를 이룩하자.

〈원불교 풍암교당 교무〉

기고

김기곤

5·18아카이브, 기록문화형성의 새로운 장

6월 9일은 '세계기록의 날'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기록은 천년지대계로 비유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날이다. 기록은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 그 이상이다. 국가의 역사이자, 한 사회의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다. 꼭 1년 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독재에 저항한 역사는 많지만, 그 기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공포와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시민들이 직접 생산한 기록들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는 경우도 드문 사례다. 그만큼 5·18기록물의 희귀적 진본성과 역사적 의미는 각별하다.

이제 5·18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의 '권리선언' 등과 같이 14개 주요 민주·인권 관련 세계기록이 되었다.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자산에 포함된 것이다. 내년 5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국제자문회의(IAC)가 광주에서 개최된다. 광주가 새로운 기록문화의 창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먼저 세계 보편유산이 된 5·18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5·18기록물은 광주시 5·18자료실,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국회도서관, 국방부 산하 육군본부, 국가기록원 등에서 관리되어 왔다. 이렇게 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 훼손 위험이 높다. 연구자나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과 활용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금남로 광주가톨릭센터 건물에 2014년 5월 개관을 목표로 5·18아카이브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곳 역시 5·18 역사현장이기 때문에 장소 보존 차원에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건립됐다.

아카이브는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장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구상 중인 기본계획의 틀을 보면, 5·18의 정신을 후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전시, 조사·연구, 교육 등 다차원적 복합문화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5·18아카이브가 기록문화의 새로운 상징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건립과정과 운영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강조해야 한다.

첫째, 5·18의 가치를 현재화하기 위한 기록문화운동의 관점이다. 5·18 이후 한국 민주화를 촉발시켜 온 5월운동의 관점을 이어받아 민주·인권·평화의 보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둘째, 민관협력의 거버넌스체계로 접근해야 한다. 5·18기록은 광주시민의 집단기억으로 광주 정체성 형성의 공통 기반이다. 따라서 광주시, 5월단체, 시민 등 지역사회구성원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건립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참여형 기록을 중시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관점이다. 개인·가족·마을·이민자 등 광주를 살아가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삶을 기록하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통해 세대 간·계층 간 공감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넷째,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이다. 5·18의 가치를 도시의 총체적 발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및 국내 민주·인권·평화 관련 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다른 민주·인권 기록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5·18의 의미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5·18아카이브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동적인 역사창조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기억과 삶의 흔적을 지속적으로 수집 발굴해 나가야 한다. 아카이브 건축 구상과 동시에 개인 및 해외의 5·18기록을 기증받고 정리하는 작업을 범시민운동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 5·18아카이브가 역사의 생생한 저장소이자 인류의 보편가치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새로운 기록문화형성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결혼식장 뷔페 약속 위반…값싼 음식 대체 황당

바야흐로 결혼 시즌이다. 날이 날인지라 곳곳에서 결혼 청첩장이 날라와 주말마다 여기저기 예식장에 찾아가 지인들의 뜻깊은 결혼식을 축하해 주고 있다.

아마도 전국의 모든 곳에서 지금 결혼 성수기를 맞아 선남선녀들의 결혼식이 진행될 걸로 안다.

그런데 얼마 전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직접 속상한 경험을 했다. 200인분의 뷔페를 예약했고, 음식이 모자랄 것에 대비해 40인분의 여유분을 준비하도록 계약했다고 한다. 물론 계약상에는 여유분의 음식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예식은 오후 2시였지만 식이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하객이 식당에 갔다. 그러나 식권을 내고 들어갔지만 음식이 없어 되돌아가는 손님이 발생했다. 예식이 끝난 뒤 다시 식당에 갔는데 인기있는 음식은 이미 바닥을 보였다. 또 음식이 떨어진 경우 약속된 음식을 제공해줬어야 함에도 김밥과 샌드위치 등 값싼 음식으로만 대체되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느냐?"는 말이 있다. 다른 곳도 아닌 결혼식 잔칫날 축하해주러 갔다가 음식이 부족해서 못 먹고 집으로 돌아가 따로 식사를 한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결혼식장에 가서 밥만 먹고 왔다던지, 혹은 결혼식 청첩장을 세금 고지서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과거의 결혼식 관행에 대해 자성의 말이 많은 요즘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하객에게 식사도 제대로 대접해 드리지 않았다면 그 혼주가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이것은 혼주가 하객들에게 절대적으로 큰 결례를 하게 하는 것이다. 결혼식에 오는 분들에게서 "손님 모셔다 음식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질책이 쏟아지지 않게 예식장들이 양심껏 제대로 영업해주길 바란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금동

시설

박람회 조직위 '꼼수행정' 관람객 오겠나

여수세계박람회에서 그동안 쉬쉬했던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직위의 '밀실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특정 전시관을 임의로 휴관하는가 하면 납품 도시락의 대장균 논란과 예약제 부활설 등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아쿠아리움 안의 전시관인 '아쿠아 포리스트'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폐쇄했다. 속내는 열대어와 해파리 등 볼거리가 많아 정체가 이어지는 만큼 관람시간을 줄여 관람객을 더 많이 받겠다는 의도에서 아쿠아 포리스트의 문을 19일째 닫아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조직위는 "일부 관람객이 과자 등 엉뚱한 먹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며 관람객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닌가. 관객을 더 받겠다고 영화의 한 부분을 통편집해 상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조직위는 또 지난달 22일 박람회장에 납품되는 A업체의 도시락에서 검사 결과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이를 숨겼다고 한다. 관람객의 보건위생은 뒷전이고 면피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심 끝에 폐지했던 예약제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정부 등 일각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선착순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자 예약제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가 오락가락 행보로 불신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여수박람회는 오늘로 28일째를 맞고 있지만 그동안 숱한 문제를 야기해온 게 사실이다. 관람객이 계획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기에 밀실행정이나 꼼수마저 부리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조직위는 투명행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박람회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일임을 새겨야 할 것이다.

사상 최고치 경신한 '가계 빚' 방치 안 된다

광주·전남지역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위험수위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신용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어 '한계 상황'에 내몰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은행, 신협 등 예금취급기관의 광주지역 가계대출이 한달 만에 1036억 원 증가한 14조261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며, 종전 최고치인 지난해 12월 14조2099억 원보다 515억 원이나 늘었다.

전남지역 역시 지난 4월 가계대출 잔액이 12조4219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9% 증가했다. 주택대출 잔액도 5조464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05%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요인은 광주의 경우 주택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이 64.7%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주택대출 잔액도 2010년 3월 이후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5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른 화정·염주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주택대출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늘어난 가계 빚에 이자 부담마저 가중돼 서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게 발생하는 서민들의 고리채 피해만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가계 빚의 경우 경기가 나빠지면 상환능력도 떨어져 부실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경기침체가 심화돼 소득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빚으로 빚을 메우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가계부채발(發) 경제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방안을 강구, 가계 빚이 금융대란으로 번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 무리하게 빚을 얻은 가계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신세대와 구세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한번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써서 보내면 구세대고, 단문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보내면 신세대다.

예컨대 "○○야, 시간 있니? 두 시에 ○○에서 볼까"라고 하면 구세대고, "○○야" "시간 있니?" "○○에서 볼까" "두 시 어때?"라고 네 번에 나눠 보낸다면 신세대라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카카오톡(카톡)이란 무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신저 앱(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기존 통신사들의 문자서비스는 요금제에 따라 월 사용 건수에 제한이 있지만 카톡을 사용하면 무료로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카톡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현재 국내 3600만 명과 해외 1100만 명 등 4700만 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모두 카톡을 이용할 정도다 보니 '국민 앱'으로 불리기도 한다.

카톡을 만든 사람은 벤처 2세대 대표주자인 김범수씨다. 김씨는 한게임을 설립해 NHN과 합병한 후 네이버를 국내 최대의 인터넷 업체로 키운 인물이다. 김씨는 스마트폰의 본질에 천착한 것이 카톡을 만든 배경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8만개 앱 중에서 선택받으려면 스마트폰의 본래 기능인 전화와 문자서비스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수다(대중과 커뮤니케이션), 카카오아지트(그룹 커뮤니케이션) 등 카카오 3인방이란 문자서비스를 시작했고 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앱인 카톡이 대박을 터트리자 여기에 올인하게 됐다.

카톡이 이번에는 무료 전화 서비스인 '보이스톡'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자 이동통신사들이 필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카톡에게 문자서비스 시장을 뺏긴 적이 있는 이통사 입장에선 보이스톡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다. 통신비 때문에 고통받는 소비자들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보이스톡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